

전북지역 소단위 마을의 傳來地名과 漢字 借用과의 관계*

유승섭(원광대)

〈목 차〉

- | | |
|--------------|-----------------|
| 1. 들어가는 말 | 4. 전북지역 고유어 지명의 |
| 2. 선행연구 검토 | 5. 맺음말 |
| 한자 차용 방식과 형태 | |
| 3. 한자 차용의 유형 | |

1. 들어가는 말

본고는 마을 단위로 구전되는 전북지역 傳來地名¹⁾을 채록하여 이들의 유래

* 이 논문은 2018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8S1A5B5A07074001)

1) 傳來地名이 모두 고유어 지명일 수는 없으나 여기서는 이 둘을 구분하지 않고 편의상 고유어 지명이라 일컫는다. 또한 '지명'이 인문사회적 측면을 두루 포함하고 '지명어'가 언어학적 측면에 한정된다는 개념도 구분하지 않고 '지명'이란 용어로 두루 쓰기로 한다. 지명 연구가 언어학적 측면만 고려될 수 없기 때문이다.

와 한자 차용과의 관계를 살핀다. 곧 고유어 지명을 어학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한자로 차용할 때 어떤 방식과 형태를 취하는지를 집중 조명한다. 이런 과정에서 때로 지명의 어휘 형성과 관련한 문화 환경 및 지리적 정보를 참고한다.

주지하다시피 15C에 訓民正音が 創製되어 이때부터 우리글로 문자생활을 하기 시작했다. 그 이전에는 한자를 빌려 썼다. 그러나 중국과 문화와 환경이 다르고 표현 방식이 다르기에 한자로 우리의 의사를 정확하게 나타내기란 어색해했을 것이다. 이를 다소나마 해소하려고 한자를 활용한 吏讀나 鄉札 口訣 등을 만들어 사용하기도 했으나 그 간극을 좁히는 데는 한계가 컸다. 이런 불편을 줄이고 우리의 생각과 문화 등을 표현하기 위해 정음을 창조하게 되었고 비로소 우리의 음성 언어를 우리 문자로 옮길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오랜 기간 동안 중국의 정치·문화의 영향력과 한자의 造語力 및 縮約力 등의 장점으로 여전히 실질명사를 우리 문자로 적지 않고 한자로 적는 경향이 많았다. 더군다나 地名은 관료들의 보수성으로 甲午更張에 이르기까지 한자나 한자를 활용한 향찰 이두 등을 두루 사용하였다. 따라서 오늘날 전해지는 人名, 地名, 山川名 등은 행정편의상 쓰기에 용이한 한자어가 모두를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기에 현존하는 고전 자료 중에서 고유어를 포기한 지명 자료도 일천하다. 그나마 15세기 작품인 <龍飛御天歌> 註解部에 고유어 지명이 소수 수록되어 있고, 그 외에는 시대를 거듭할수록 거의 보이지 않는다. 물론 <龍飛御天歌>이전의 자료로 <三國史記> 地理志가 있으나 이는 한자로 쓰인 기록에 지나지 않는다. 이에 고유어 지명을 어떻게 한자로 옮겨 적었는지 알기 위해서는 또다시 한자어를 해독해야 하는 불편이 있다. 이러다보니 자료를 바탕으로 하는 고유어 지명연구는 <<龍飛御天歌>>가 커다란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본고도 전북 지역 고유어 지명을 분석하고 이를 어떻게 한자로 차용했는지 분석하기 위해 <<龍飛御天歌>> 註解部の 지명을 선행하여 따져보고 규칙을 탐색하여 본 논의의 모형으로 삼는다.

2. 선행연구 검토

지명 연구를 위해서는 먼저 일일이 채록하고 자료를 수집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은 불문가지이다. 이런 점에서 한글학회가 1966년부터 1986년까지 추진해 온 <한국지명총람>의 간행은 다소 미흡하다는 평가가 있더라도 높이 평가되어 왔다. 근래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구축해 놓은 자료도 마찬가지이다. 자료가 비록 민간인 구술에 너무 의존적이어서 그 신빙성이 적어 학문적인 논리를 세우는 데 아쉬운 점이 있더라도 이런 기초 자료를 토대로 연구가 이뤄져야 그 시비의 껍질을 벗길 수 있으리라 본다. 이런 점에서 아래의 연구들은 크나큰 동기부여가 된다.

먼저 고대어 및 지명과 관련한 논의는 지현영(1942), 양주동(1965)을 필두로 최범훈(1976), 유재영(1972, 1975), 이돈주(1971), 도수희(1990, 1998), 강병륜(1997), 김방한(1982), 김준영(1986), 천소영(1990, 1991), 손희하(2014, 2017), 김정태(2017) 등이 대체로 고어 해독과 지명의 차자 표기 방식에 대해 다뤘다. 그리고 박병철(2011), 조항범(2012)과 이후 신진 세대들이라 보는 최두환(2008), 한주희(2016), 김정태(2017) 등이 개별 지명을 대상으로 정통 국어학적인 초점에 맞춰 연구의 깊이를 더하고 있다. 여기에 유재영(1972), 김준영(1986) 등은 전북 방언에 국한하여 한자 차용 관계나 지명의 유래 및 기원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이중 몇몇을 들면서 본 논의의 방향을 정하기로 한다.

양주동(1965)은 차자표기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향가해독의 기본원칙을 천명하고 있어 고대 가요 해독의 신기원을 이뤘다는 평가다. 이로 인해 지명의 이두식 한자어 해석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유재영(1975), 도수희(1990) 등은 <龍飛御天歌> 註解部에 있는 고유어 지명에 대한 한자어를 비교 분석하여 그 차용 방식을 다루었다. 특히나 音借, 訓借 이 외에 다양한 형태로 한자를 차용했음을 밝히고 있다. 더욱이 도수희(1998)는 ‘받쳐적기법’이라는 특별한 묘법을 제시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金完鎭(1980:17)의 ‘訓主音從’에 기반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천소영(2001)은 지명의 차자 표기 과정에 대해 논했다. 지명의 차자표기는 초기에 借音表記에서 다음 단계로 借訓表記 및 이 둘이 혼용되는 혼합표기로 발전했다고 보았다. 이 중 고유어 전부를 借訓하면 漢譯지명이 되는데 한역도 초기 直譯에서 출발하여 비슷한 의미의 意譯으로 나아가고, 다시 이왕이면 뜻이 좋은 한자를 택하는 雅譯으로 그 유형이 다양화된다고 하였다. 여기서 雅譯이란 차자표기법에서 音假 및 訓假(또는 訓音借)에 해당되는 것으로 지명표기만 있을 수 있는 특수한 현상이라 보고, 고지명 연구에서는 고유지명의 한어화 과정에서의 이런 특수성을 이해하는데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위에서 언급한 이들은 대체로 고어 해독법이나 고유어에 지명에 대한 한자 차용 관계 및 용어 문제를 두루 다루었다면 다음의 논의는 개별 지명에 대한 국어학적 기술에 천착하거나 전북지역 지명에 국한하여 다루고 있다.

박병철(2011), 조항범(2012)은 ‘쇠벼르’를 국어학적으로 분석을 하면서 지리적인 정보도 첨언하였다. 이들은 여러 국어학자들의 분석을 통해 논의된 ‘쇠의 ‘ㅣ’를 관형격으로 처리하고, ‘쇠벼르’를 ‘沼와 접한 벼랑길’(박병철) ‘沼와 접하면서 벼랑으로 난 돌길’(조항범)로 보아야 한다며 현재의 지리적 위치를 제시하고 있다.

전북지역 지명에 국한한 논의로는 유재영(1972), 김준영(1986), 최두환(2008) 등이 있다. 유재영(1972)은 全北地方의 傳來地名에 대해 한자 차용 방식이 어떻게 이뤄졌는지를 따져 유형별로 분류하였다. 김준영(1986)은 전북 지역 마을, 산, 내, 골짜기, 들의 소지명에 대해 지역민들의 견해를 토대로 그 유래, 지형, 환경, 생성시기, 특성, 어원에 대해 간략 소개하고 있다. 두 논문은 차자 표기 방식에 대해 집중 조명했거나 어원과 관련한 인문 지리적 설명에 역점을 두고 있다.

이에 반해 최두환(2008)은 ‘益山’의 고지명 ‘金馬渚가 의미적 일관성을 가지고 시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음을 밝히고, 기존의 형태소 분석에서 벗어나 ‘金馬渚’는 두 개의 형태소가 아니라 세 개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여기서

‘金’은 ‘asi’로 읽히고 그것은 ‘王宮’을 나타내는 고조선 시대의 ‘阿斯’와 같은 것으로 보고 있다. 비록 한자어 지명에 관한 논증이지만 현재 남아있는 개별 지명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다루고 있다. 한주희(2016)도 복합어로서의 지명어는 단어 형성 기제와 결과로서의 의미 합성성 여부를 연구하는데 의미 있는 자료가므로, 그 형성 기제를 형태론적 구성의 기제와 통사적 구성의 기제를 상정하여 논의해야 한다고 하면서 단어 형성론 차원에서 다루고 있다.

본고는 유재영(1972)과 김준영(1986)에서 다룬 내용을 기반으로 하여 개별 지명에 대한 국어학적인 분석과 고유어에 대응하는 한자 차용 관계를 논의한다.

3. 한자 차용의 유형

우리의 고유 문자가 없던 시기에 옛날부터 전승되어온 고유어를 한자로 표기하는 방식이 여럿이 있었다.

먼저 音借이다. 이는 고유어와 소리가 같은 해당 한자음을 차용하는 방식으로 표기의 제일차적인 수단이다. 음차는 고유어의 음을 그대로 소리 낼 수 있는 장점을 지닌다. 오늘날 로마자 표기도 이러한 식인데 음차로서 모두를 표기할 수 있다면 다른 방식의 필요성은 절감된다. 그러나 음차의 단점은 본래의 의미를 담지 못한다는 데 있다. 2) 이를 보완한 방식이 訓借나 音訓 混行借³⁾ 등이다. 곧 訓借는 뜻에 알맞은 한자를 골라 표기하는 방식으로 음차의 이차적 수단이다. 훈차용 방식이 이차적이라는 점은 崔世珍의 <訓蒙字會> 자모 명칭에서도 알 수 있다. 곧 ‘初聲終聲通用八字’에서 ‘ㄷ(池末)’, ‘ㅅ(時衣)’을 읽을 때 각각 2음절의 소리 ‘은’, ‘웃’에 대당되는 한자가 없기에 뜻에 맞는 ‘근>끝’의

2) 특히 뜻글자인 한자 차용은 더욱 심하고, 소리글자인 영어인 경우에도 알파벳이 우연히 같더라도 그렇다.

3) 본고에서 音訓 混行借란 ‘音+訓’과 ‘訓+音’이 순서대로 함께 쓰이는 것을 통칭해 부른다.

‘말(末)’과 ‘웃>웃’의 ‘의(衣)’자를 차차 표기한 것과 같다.

이처럼 음借와 訓借는 서로 다른 언어 간의 표기 방식이고 이는 한국어와 한문자에 있어서 대표적인 표현 방식이었다. 대체로 이 두 유형이 대표적인 지명 표기 방식이었다. 그러나 두 방식만으로 지명을 표기하는 데는 한계가 컸다. 그것은 우리말과 한문이 음절구조가 다르고 문법 체계가 상이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두 방식을 활용한 다양한 형태로 지명을 표기했다. 곧 음차와 훈차를 기본 방식으로 삼고 다음과 같은 다양한 형태로 한자를 활용하였다.

〈한자 차용 방식과 형태〉

가. 차용 방식 : ‘音借式’, ‘訓借式’

나. 차용 형태 : ‘訓音形’, ‘音訓/訓音 混行形’, ‘義表記形’, ‘同一地名의 異記形’, ‘韓國式 漢字 및 借字表記形’, ‘同語異記形’, ‘異語 또는 異音語 同記形’

위에서 보듯이 (가)와 같이 음借와 訓借를 차용 방식이 있고, 이를 활용한 (나)의 일곱 유형의 차용 형태가 있었다. (나)를 차용 형태로 분류한 것은 모두 (가)의 차용 방식을 활용한 표기이기 때문이다. 곧 모두 음과 훈을 여러 형태로 조합하여 차용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고 논의 이어나가기로 한다.

다음 절에서는 한자 차용 방식 (가)와 차용 형태 (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이에 따른 전북지역 소단위 고유어 지명을 각각 나눠서 설명하기로 한다.

4. 전북지역 고유어 지명의 한자 차용 방식과 형태

4.1. 한자 차용 방식

4.1.1. 音借式

우리말 음에 맞거나 비슷한 漢字를 빌려다 표기하거나 때로 韓國式 漢字로 표기한 방식이다. ‘수주(隨州, 龍飛1·8B)’, ‘듬바되(澄波渡, 龍飛5·27A)’, ‘등산곶(登山串, 龍飛1·31B)’, ‘갈두(加乙頭, 龍飛1·38A)’, ‘횃가(回叱家, 龍飛1·8B)’ 등이 그러한 예다.

‘수주’에 대한 음차 ‘隨州’는 근대국어에서 일어났던 단모음화가 이뤄지기 전의 당시의 현실음이다. ‘듬바되(澄波渡, 龍飛5·27A)’는 고유어 음과 유사한 한자를 차용했다. ‘등산곶(登山串)’의 ‘串’은 韓國式 漢字음의 표기이고, ‘갈두(加乙頭)’, ‘횃가(回叱家)’의 ‘乙’, ‘叱’은 음절 차용이 아니고 鄉札, 吏讀 등에서부터 사용된 중성 ‘ㄹ, ㅅ’의 音素 차용자다. 그래서 ‘갈두(加乙頭)’에서 ‘갈-’은 ‘가(加)’의 取音에다 ‘ㄹ’에 해당하는 ‘乙’을 따와 ‘갈-(加乙)’로 표기였다. ‘수주(隨州)’는 一字一音이 완전히 같고, ‘듬바되(澄波渡, 龍飛5·27A)’는 類似音を 차용하였으며, ‘등산곶(登山串)’은 전부요소 ‘등산’은 한자를, 후부요소 ‘곶’은 한국식 한자음을 차용했다. ‘갈두(加乙頭)’, ‘횃가(回叱家)’는 1음절 받침이 음소 차용이다. 이들 지명은 고유어에 딱 맞는 한자음, 고유어와 유사한 한자음 그리고 한국식 한자음을 차용했거나 음소에 걸맞은 한자음을 차용했다.

이와 같은 음차 방식의 전북지역 지명을 들면 다음과 같다.

부무곡 : 富武谷(정음·內藏)

모고지 : 慕古地·母顧地(완주·伊西)

애통리 : 倭塚里(완주·伊西)

석기메 : 石己梅(익산·三箕)

질구지 : 吉串里(김제·進鳳)

‘부무곡(富武谷)’은 속칭 ‘부무실’이라고도 한다. 소단위 지명 한자화 과정에서 보통 ‘고을’, ‘골’은 ‘동(洞)’으로 골짜기란 뜻의 ‘실’은 ‘곡(谷)’으로 표기했다. 후부요소 ‘실’에서 ‘곡’의 한자화는 이런 반영의 결과다. 한편 ‘부무곡’은 〈戶口總數(1789)〉에서는 ‘富毋谷’으로 〈市政10年史(1992)〉에서는 ‘夫武谷’으로 되어 있어 표기가 다르다. ‘夫武谷’으로 쓴 것은 〈舊韓國 地方行政區域 名稱一覽(1985)〉에서 ‘夫武里’로 쓴 까닭에 기인한 것이라고 보인다. ‘부무곡’은 마을의 산 형세가 ‘불무통(풀무)’인 대장간과 같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는 유래가 있다. 이에 ‘불무’가 전음(轉音)되어 ‘부무’가 되었고, 이후 시대를 달리하며 한자 차용어가 달라졌다고 볼 수 있다.

‘모고지’는 ‘모(못)+꽃이’로 분석된다. ‘모고지’는 마을 앞에 연못이 있는 까닭에 ‘못이 있는 곳(所)’이란 뜻에서 유래됐다 볼 수 있다. 두 지명 ‘부무곡(富武谷)’과 ‘모고지(慕古地·母顧地)’는 고유어와 일치하는 한자음을 차용하였다.

‘애통리(倭塚里)’의 고유어 지명은 ‘쑥골’이다. 이 마을은 김제-전주 간 도로 변에 자리한 마을로 ‘상사’ 동쪽 약 1km 지점에 있다. 오늘날 ‘애통리’란 말은 고유어 ‘쑥골(艾谷)’의 차용어 ‘애골’에서 비롯됐다고 본다. ‘애골’을 단순히 ‘애골터지다, 애통터지다’ 등으로 잘못 인식하여 ‘애통리’라 불렀고, 여기에 또다시 역사적 사건과 결부시켜 유사 한자음 ‘왜총리(倭塚里)’로 명명했을 가능성이 크다. ‘倭塚里’를 쓴 까닭은 임진왜란 때 이 마을에서 북쪽으로 2km쯤 떨어진 ‘왜돌’에서 몰살당한 왜구들의 시체를 묻은 무덤이 있었기 때문이다. 본래 고유어 ‘쑥골’로 부르던 지명을 이후 언어 인식의 오해와 역사적 사건과 더불어 ‘애통리’, ‘왜총리’로 불렀고 지금은 ‘애통리’, ‘애통이’로 부르고 있다. 그러니까 ‘쑥골>애골>애통리~왜총리>애통리~애통이’의 과정은 고유어의 의미를 반영하지 못한 결과이다.

‘석기매(石己梅)’ 마을은 익산시 삼기면 삼기산(三箕山) 아래의 마을이다. 현 행정 지명 ‘석기매(石己梅)’는 본래 고유어 지명 ‘삿기매’에서 유래했다. ‘삿기’는 ‘새끼’의 고어이고 ‘매’는 산이다. 따라서 ‘삿기매’는 작은 산이라는 뜻이며 그것은 이곳 근처에 비교적 큰 미륵산(여기에 국보 제11호 미륵사지

석탑이 안치돼 있음) 근처에 있는 작은 ‘새끼피’인 ‘삼기산’을 이른다. 따라서 ‘석기매’와 ‘삼기산’은 같다. 다만 고유어 ‘삿기매~셋기매’를 유사 한자음인 ‘三箕山’를 취했는가, ‘石己梅~石箕梅’를 취했는가에 따라 표기가 다를 뿐이다. 결국 ‘석기매’는 석기마을이고 삼기마을이니 음차 ‘석기(石己)’, ‘석기(石箕)’, ‘삼기(三箕)’는 모두 동일한 지명이다.

‘질구지(吉串里)’에서 ‘질’이 ‘길(吉)’로의 대응은 구개음화 이후로 굳어진 형태 때문이다. ‘串’은 ‘긋+이(겹미사)’로 ‘긋이’의 변이형이다. 그러니 1음절은 음차요 2음절은 한국식 한자음 표기이다.

4.1.2. 訓借式

우리말 뜻에 맞는 한자를 차용한 방식이다. 음차가 차용 방식의 원초라면 훈차는 보조적 방식이다. 그러나 훈차가 고유어의 의미를 간결하고 정확하게 유지하는 등 개념어로서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 음차 못지않게 차용됐다.

‘조코불(栗村, 龍飛2·22B)’, ‘고마느ㄹ(熊津, 龍飛3·15B)’, ‘부형바회(鳳凰巖, 龍飛5·27B)’ 등에서 이러한 특징을 알 수 있다.

‘조코불(栗村)’은 ‘조(栗)+ㄹ불(村)’의 합성어로서 전·후부요소 모두 훈차하고 있다. 여기서 ‘조(栗)’는 ㅎ중성 체언이고 ‘ㄹ불’은 ‘읍·郡’ 등의 고어로 또한 ㅎ중성을 지녔다. ‘ㄹ불’의 변천은 ‘ㄹ불>ㄹ울>고을>고을’이고, ‘고을’이 축약되면 ‘골’로도 쓰인다. ‘고을’, ‘골’은 ‘洞’으로, ‘실’은 ‘谷’으로 쓰인다. <龍飛御天歌> 註解部 지명에서 보면 ‘ㄹ불’과 ‘골’ 두 형태가 공존하는데 ‘골’이나 ‘골’의 탈락형 ‘을’에는 ‘洞’으로 표기했고, 古形 ‘ㄹ불’에만 ‘村’으로 표기하고 있다. 한편 15세기 ‘빙>w>Ø’의 변화는 여러 지역의 지명에서 볼 수 있다. ‘대밭 竹田’의 ‘밭(田)’이나 구례군의 ‘피앗골’⁴⁾의 ‘앗’이 그것이다. 곧 ‘피밭>피밭>피왠>피

4) ‘피앗골’은 한국전쟁과 관계없이 그 이전에 지어진 이름이다. 과거에 이미 ‘피앗골’은 ‘직전(稷田)’으로 표기하고 있었다. <訓民正音解例>는 ‘피爲稷’(用字例)이라 했고, <訓蒙字會>도 ‘피직 稷’(上12)이라 했다. 따라서 ‘피앗골’의 ‘피’는 훈차인 것이다. ‘앗’도

앗'의 변화 과정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전북지역 지명에도 다수 발견된다. 곧 '가랏'(<갈앗<갈왓<갈밭<갈반, 葛田)(전북 익산 春浦), '다랏'(<달앗<달왓<달밭<달반, 月田)(전북 장수 溪北), '느랏'(<늘앗<늘왓<늘밭<늘반, 於田)(전북 완주 삼례) 등의 동계적인 변화가 동일 방언권역에서 확인된다.

'고마누르(熊津)'는 '곰(熊)+-아(관형격)+누르(津)'로 분석될 가능성이 크다. 전부요소 '곰'은 '大'의 뜻을 보여 '곰나루'는 '큰 나루'로 해석된다. 전부요소, 후부요소 모두 훈차를 취하고 있다. 한편 '고마누르(熊津)'는 위 형태소 분석에서 보듯이 속격의 '-아'가 개재되었는데, 같은 형태의 속격이 여러 지명에서도 나타난다. 대표적으로 경기도 파주의 '도라산'도 '돌+-아+산'으로 분석할 수 있다.

'부형바회(鳳凰巖)'에서 '부형'은 '鳳凰'이 아니기에 類似訓借이다. '부형'을 '鳳凰'으로 표기한 것은 '부형'을 미화하려는 의도 때문이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완전한 훈차, 유사한 훈차 방식의 전북지역 지명을 더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새금골 : 金坪(김제·金山)
 뉘머리 : 蠶頭(무주·茂朱)
 구수골·구슬골 : 槽洞(순창·福興, 정읍·七寶)
 소라단 : 松田內(익산·南中洞)
 푸다리 : 草橋(익산·三箕)
 치룻 : 葛田(익산·三箕)
 솥대미 : 壽塙(순창·東溪)

김제의 '새금골(金坪)'은 마을 근처에서 사금(沙金)이 많이 나온다고 해서 '사금→새금'이라 한다. 이의 훈차 '金坪'은 '사금(새금)이 나는 땅'이란 뜻이다.

무주의 '뉘머리(蠶頭)'는 '누(누에)+ㅣ(관형격)+머리'로 분석되고 한 단어에 한 뜻이 부합 대응되는 훈차 표기이다.

'田'의 훈차에 해당한다. 이것이 음차라면 '던'이어야 한다.

‘구수골·구술골’의 ‘구수’, ‘구술’은 ‘구슈’, ‘구술’로 현대어 ‘구유(槽)’이다. 남부방언의 특징인 ‘ㅅ>ㅌ>ㅇ’로의 음운사적 관점에서 보면 전북 지역이 다분히 고형을 유지하고 있다. ‘구술’은 ‘구수+울’로 ‘우’의 탈락 축약형이다. ‘구수’가 접두된 지명은 대체로 말구유와 같은 地形에서 연유된 것으로 보인다.

익산의 ‘소라단(松田內)’은 고유어 ‘솔(松)+밭(田)+안(內)’의 음운 변화로 나타난 훈차이다. 여기에는 전라도 방언의 특징으로 나타나는 ‘새비>새우’와 같은 ‘빙’의 약화 탈락이 있다. 그리고 받침의 중화 현상, 연철 표기가 반영되어 있다. 곧 ‘솔밭안’이 ‘ㄹ’ 아래서의 ‘ㅂ>빙>ㅇ’의 약화 탈락과 설단자음 중화 규칙 ‘ㅌ→ㄷ’에 의해 ‘솔밭안>솔안안’이 되고 이를 연철 표기하여 ‘소라단’에 이르게 된다. 이를 훈차한 것이 ‘松田內’이다.

‘푸다리’의 차용자는 ‘草橋’이다. ‘푸다리’는 ‘풀+다리’에서 ‘ㄹ’이 ‘ㄷ’ 앞에서 탈락되었고 이를 훈차한 것이 ‘草橋’이다. 이곳 마을에는 오래 전부터 풀로 엮은 다리가 있었다.

오늘날 ‘상갈’과 ‘하갈’로 전해지는 ‘갈전(葛田)’은 위 아래를 구분 표기한 것이다. 한자어 ‘갈전’은 지금도 고유어로 부르고 있는 ‘치룻’을 훈차한 것이다. ‘치룻’이 ‘취(葛)’와 관련이 있는지 현재로선 알 길이 없고, 다만 이곳이 풍수상 갈화낙지형(葛花落地形)이란 설화가 전해지고 있어 이에 연유한 이름일 것이라 추정한다. 분명한 것은 음운사적으로 ‘갈전(葛田)’의 고유어인 ‘치룻’의 변화 과정은 위에서 보았던 ‘솔밭안>솔안안’의 설단자음 중화와 ‘ㅂ’의 약화·탈락처럼 ‘취밭>취완>치룻>치랏’이 ‘치룻’으로 전변된 사실이라는 것이다.

위의 지명들은 고유어 뜻에 대당하는 한자어 차용 표기이다. 그러나 순창의 ‘쑥대미’의 차용 과정은 조금 다르다. 곧 ‘쑥대미(壽牆)’는 화초인 ‘쑥대장미’에 해당하는 한자어 ‘薔薇’를 차용하지 않고, ‘담장’의 ‘牆’을 차용하고 있다. 뜻이 비슷하거나 다른 한자를 차용한 異訓表記라 볼 수 있다.⁵⁾

5) ‘쑥대미’를 ‘壽薔’으로 차용하지 않고 ‘壽牆’으로 표기한 것은 한자의 通假의 원리에 의한 것이다. 곧 과거 한자는 글자를 쓰려다가 생각나지 않으면 本字를 다른 同音字로 대체하여 썼다. 이를 通假字라 한다. 切齒拊心→切齒腐心, 水原→水源에서 拊→腐, 原→

지금까지 전북지역 고유어 지명을 한자로 차용하는 데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音借, 訓借 방식을 살펴보았다. 지명은 두 방식만으로 표기하지 않았다. 두 방식을 기본으로 다양한 형태로 한자어화하였다. 본고는 이를 한자 차용 형태라 부르고 논의를 이어가기로 한다. 그러니까 차용 형태란 음과 훈을 이용하여 표기 형태가 서로 다른 여러 유형을 이른다.

4.2. 한자 차용 형태

4.2.1. 訓音形

‘訓音形’은 향찰 표기처럼 한자의 첫머리는 훈의 음을, 뒤는 음을 빌려 적는 법이다.⁶⁾ 훈의 음만 빌려 적기 때문에 음차와 훈차의 또 다른 방식으로 분류할 수 있겠으나, 결국 한자의 음과 훈을 빌려 쓰기 때문에 차용 형태(유형)로 분류하여 논의를 이어나간다. ‘訓音形’은 김완진(1980)의 ‘訓主音從’법, 도수희(1998)의 ‘반쳐적기’법과 유사하다. 훈음형을 예를 들면 ‘믄룻골(畝音洞, 龍飛畝 · 34A)’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는 고유어의 뜻을 담고 있는 한자에 그것의 음과 일치하는 한자를 덧붙이는 방식이다. 곧 현대국어 ‘하지 말다’의 ‘믄-’에 해당하는 한자어 ‘畝’를 차용하고, 여기에 ‘-음’을 붙여 ‘믄-+-음→믄음→마름’을 만들어 ‘畝音’이 되었다. 따라서 이는 ‘마름’으로 읽어야지 ‘사음’으로 읽으면 안 된다. <우리말큰사전>에서 ‘마름’은 ‘지주의 위임을 받아 소작인을 관리하던 사람’이란 뜻으로 풀이하고 ‘사음(畝音)’과 뜻이 같다 풀이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慶州府驛’의 ‘活里→沙里’는 ‘활리’로 읽으면 말이 안 된다. 반드시 ‘사리~살리(沙里)’로 읽어야 한다. ‘活→沙’의 훈의 음이 ‘사~살’이기 때문이다. 이와

源이 통가자이다. ‘然’도 ‘불탄다’는 뜻이었지만, ‘그러하다’라는 뜻으로 많이 사용되자, 불탄다는 뜻을 나타내려고 ‘火’를 덧붙여 ‘燃’으로 적었다.

6) 도수희(1998)는 이를 ‘반쳐적기’법이라고 했다. 이에 대한 설명은 도수희(1998) ‘지명차자 표기 해독법’ 참조.

같은 방식의 훈음차의 전북 지명어는 다음과 같다.

늘애리 : 板浦里(익산·熊浦)

‘늘애’는 ‘널개 > 늘개 > 늘애’로 변화과정을 거쳤다. 이 지명의 구조는 ‘널+개’로 분석할 수 있다. ‘널>늘’은 폐구조음성에 의한 변화이다. 이 때 ‘널>늘’은 ‘판자’가 아니라 ‘널렸다’, ‘나열해 있다’는 뜻으로 ‘곰개(熊浦)’로부터 ‘봄개(春浦)’까지 ‘개(浦)’가 여러 개 널렸다는 뜻으로 보아야 한다.(도수희, 1998) ‘개 > 애’는 15세기 지명에서 발견되는 ‘졸애(照浦)’(〈龍飛〉 제43장)와 같이 ‘ㄹ’아래서 ‘ㄱ’탈락현상에 해당한다. 이에 ‘널(板)’은 ‘판자’와 관계없는 ‘널려있다’의 ‘널-’에 해당하는 훈의 음을 썼고, ‘浦’도 ‘개>애’ 훈의 음을 빌렸다. 이에 ‘板浦里’는 ‘판포리’가 아니라 ‘늘애리’, ‘느래리’가 된다.

4.2.2. 音訓/訓音 混行表記⁷⁾

ㄱ. 音訓 混行形

‘音訓 混行’이란 ‘음차’와 ‘훈차’를 순서대로 함께 섞어 표기한 형태를 말한다. 다음 절에서 소개할 ‘訓音 混行’보다 수적으로 훨씬 많다.

광느리 : 廣津(龍飛3·13B)

도라산 : 都羅山(경기도·坡州)

‘광느리(廣津)’의 ‘광’은 소리대로 ‘廣’으로 음차했고, ‘느리’는 ‘津’으로 훈차했다. ‘성’과 ‘жат’을 ‘城’으로 쓰듯이 ‘진’과 ‘느리’도 ‘津’으로 썼다. 앞서 보았듯이 경기도 파주의 ‘도라산’은 지금 ‘都羅山’으로 쓰고 있다. 여기서 ‘都羅’의 차용 방식은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하나는 음借이다. 곧 ‘도라산(都羅山)’은

www.kci.go.kr

7) ‘音訓’/‘訓音’ 混行形이란 기존의 ‘音+訓/訓+音 混合形과 같다.

‘도라미’, ‘돌미’로 흔하게 쓰이는데, 이때 ‘道羅’는 단순한 音借라고 본다. 물론 ‘미’는 ‘山’의 訓借이다. ‘도라미’는 ‘돌미’에 속격의 ‘-아’가 개재된 어형으로 분석할 수 있는데, 이는 위에서 보았던 ‘고마^나라>곰나로’와 같은 이치다. ‘도라미’의 이형태 ‘도리미’도 ‘돌미’에 속격의 ‘-의’가 개재된 ‘도리미’로부터 변한 어형으로 볼 수 있다. 다른 하나는 混음형이다. 전국에 ‘돌미’라는 지명은 아주 흔하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돌’을 ‘石’, ‘미’를 ‘山’의 뜻으로 보고 ‘돌미’를 ‘돌이 많은 산’으로 해석한다. 이에 따라 ‘石山’이 됐다. 물론 ‘미’는 ‘뫼’로 ‘山’이 분명하다. 그러나 ‘돌’이 ‘石’이라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그것은 訓音借로 ‘돌’을 동사 어간 ‘돌-(回)’로 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돌말’, ‘돌모루’에서 동사 어간 ‘돌-(回)’이 분석되기 때문이다. 만약 ‘돌미’의 ‘돌’을 동사 어간 ‘돌’로 본다면, ‘돌미’는 ‘돌아가는 산’ 정도로 해석할 수 있다. 이 산이 평야에 우뚝 솟아 있다는 점에서 어느 쪽으로 가든 돌아서 가게 돼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돌미’가 ‘돌아가는 산’이라면 이것에서 변형된 ‘도라미’, ‘도라산’, ‘도리미’도 그와 같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도라’가 ‘도라말(산을 돌아가서 있는 마을)’, ‘도라모탕이(돌아가는 곳에 있는 모퉁이), ‘도라재(돌아가는 고개)’ 등에서 보듯 ‘回’의 뜻을 보인다는 점에서도 ‘도라산’이 ‘돌아가는 산’이라는 의미가 부각되기도 한다. 그런데 ‘돌미’의 ‘돌’이 동사 어간 ‘돌-(回)’이라면 동사 어간과 명사 사이에 속격의 ‘-아’가 개재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남는다. 후기중세국어에서 이러한 조어 규칙은 존재하지 않으나 그보다 이전 시기에는 이러한 조어 규칙이 존재했지 모를 일이다. 어쨌든 ‘도라산’이 동사 어간 ‘돌’의 뜻에 맞는 ‘都羅’를 차용했다면 이는 ‘訓音形’이 된다. ‘음훈 혼행형’의 전북 지역 지명어를 들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가막재 : 加幕峙(진안·上田)

사리실 : 獅狸谷(순창·雙置)

갈매 : 葛山(익산·金馬)

진안의 ‘가막재(加幕峙)’는 전부요소 ‘가막’은 음차이고, 후부요소 ‘재’는 훈차이다. ‘가막재’는 靈物 까마귀와 관련하여 ‘까막→가막’으로, ‘사리실’은 ‘짜리→사리’로의 변화를 예측할 수 있다. 이곳 ‘가막재’의 분석은 몇 가지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먼저 ‘가마(釜)+ㄱ·ㅇ’으로 ‘陶窯地’나 지형의 ‘盆地’의 뜻을 본뜨고 나중에 음차한 경우이고, 또 하나는 ‘감(冚·神)’이나 ‘감(神)+악·양(관형사형어미)’으로 ‘蘇塗’, ‘城隍’ 등의 神域에서 역시 음차한 경우라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또 이곳 ‘진안’의 ‘가막재’는 ‘까마귀’의 지형이나 설화와 관련하여 명명하고 이를 단순히 음차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것은 언덕이나, 고개와 관련하여 ‘烏峙⁸⁾’라는 지명이 널리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익산의 ‘갈매(葛山)’는 이 지역 산에 씩이 많이 나는 곳이므로 그에 결부시켜 차용했다고 볼 수 있다. ‘가막재’, ‘사리실’, ‘갈매’와 같이 전부요소는 음차를 후부요소는 훈차를 한 ‘음훈 혼행’이다.

ㄴ. 訓音 混行形

‘訓音 混行’은 ‘音訓 混行’의 역순으로 전부요소는 ‘훈차’를 후부요소는 ‘음차’를 차례로 표기한 형태이다.

흙성 : 泥城(龍飛1·44A)

길동군 : 永同君(강원도)

대표적으로 ‘흙성(泥城)’가 같은데 전부요소는 훈으로 후부요소는 음을 차용하고 있다. 강원도 ‘영동군(永同郡)’은 본래 ‘길동군(吉同郡)’이었는데 신라 경덕왕 때 개명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⁹⁾. ‘길동군(永同郡)’은 ‘흙성’과 같이 훈음 혼행으로 표기하고 있다. ‘훈음 혼행’형은 ‘음훈 혼행’형과 선후행 차용이

8) 전남 구례읍 계산리, 경남 청도 매리 등에 ‘오치고개’가 있고, 전남 고흥 신흥리에 ‘오치음성’이 있다.

9) 永同郡 本吉同郡 景德王改名今因之(三國史記 卷 第三十四)

역순인 경우로 수적으로 보면 ‘음훈 혼행’형에 비해 적다. 그것은 음차용 시도가 여의치 않거나 뜻을 담아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한하기 때문이라 보인다.

‘훈음 혼행’형의 전북지역 고유어 지명을 들면 아래와 같다.

밤소 : 栗所(완주·鳳東)

너추리 : 汝草里(김제·月村)

앞서 보았듯이 ‘흙성(泥城)’과 같이 ‘밤소(栗所)’도 전부요소 혼차에 후부요소 가 음차이다. ‘너추리(汝草里)’도 마찬가지로인데 ‘밤소(栗所)’와 다른 점은 ‘밤소’는 후부요소의 음 ‘소’에 동일한 한자음 ‘所’를 차용한데 반해 ‘너추리(汝草里)’는 유사한 음 ‘추’를 ‘草’로 음차했다. 어쨌거나 모두 훈음 혼행차이다.

4.2.3. 義表記形

본 절에서 義란 이치와 도리에 알맞은 객관적인 뜻을 이르고, 意란 겉으로 드러나는 주관적이며 심리적인 뜻이라 전제해둔다. 따라서 ‘義表記’¹⁰⁾은 고유어의 뜻에 합당하고 이치에 맞게 의미를 반영하여 표기하고 발음은 표시하지 않는 차용 형태이다.

도투마골 : 閑機里(익산·朗山)

피매 : 馬洞(익산·三箕)

도마리 : 小都(익산·三箕)

벌터 : 昭坪(김제·進鳳)

뒗담 : 北里(무주·茂豐)

낭산의 ‘도투마골(閑機里)’은 ‘도투마리’에서 유래된 말이다. ‘도투마리’는 벼를 짜기 위해 낱을 감는 틀이다. 이에 해당하는 한자가 ‘機’이다. 여기에

10) 여기에 대해선 송기중(1997)의 ‘譯義’ 참조.

‘閑’과 ‘里’를 붙여 ‘閑機里’가 됐다. 고유어 ‘도투마골’이 어떤 연유로 명명됐는지를 밝히는 일은 쉽지 않다. 다만, ‘도투마골’이 ‘閑機里’로 한자화 되는 과정을 역으로 추정해봄으로써 그 연유를 미뤄볼 수 있다. 곧 ‘閑機’를 다시 한글로 옮기면 ‘큰틀’이 된다. ‘큰틀’은 발음의 편리와 유추 과정을 거치면 ‘큰들’이 된다. 여기서 ‘크다’의 어간 ‘크-’에 해당하는 고어 ‘하-’에 관형사형이 결합한 형태 ‘閑’을 차용했고, ‘들’은 유추 과정을 거치기 이전의 ‘틀’에 해당하는 ‘機’를 그대로 썼다고 본다. 이런 합리적 추론이 가능한 전형적인 지명이 義表記이다. 실제 이 마을은 근처에 큰 들이 형성되어 있어 지금도 ‘한들’ 마을이라고도 부른다.

고유어 ‘피매’의 한자어가 ‘馬洞’이다. 행정 지명은 ‘마동(馬洞)’이나 지역주민 들은 지금도 ‘피매’라고 부른다. ‘피매’는 피아마(피매말, 피마)인 암말을 이른다. ‘피매’는 마을 지형이 대대로 천석이 난다는 명당인 갈마음수형(葛馬飲水形) 중에서도 피마와 같다고 해서 붙여진 것이라고 전한다.

‘도마리’는 한자 지명이 ‘小都’이다. 현재 행정 지명으로 고유어 ‘도마리’가 쓰이고 있다. 옛말로는 ‘새터도마리’, ‘작은 도마리’로 불리었다. ‘도마리’는 본래 한 마을이었으나 뒤에 큰 도마리와 작은 도마리로 나뉘었다. ‘소도(小都)’는 작은 도마리이다. ‘도마리’는 ‘도(都)+마리(里)’로 분석된다. ‘마리(마을)’는 줄임말로 ‘말’이고 여기에 접미사 ‘이’가 붙은 꼴이다. ‘도’는 소리가 같은 ‘都’로 쓰고 있으나, ‘都’의 의미는 ‘마을’, ‘동네’, ‘새로운 터’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이에 ‘도마리’는 ‘새로운 터의 마을’이란 뜻을 갖는 한자 ‘都’를 차용하여 ‘小都’로 썼다고 본다. 한편 ‘도마리’는 예전부터 ‘권뜸’, ‘외딴말’로 부르기도 한다. 이는 마을 근처에 ‘권 씨’ 종산이 있고, 거기에 외딴집이 하나 있어서 명명되었다는 유래가 있다.

김제 ‘벌터 마을’의 차용 표기가 ‘昭坪’이다. ‘벌터’는 지금의 서둔동 일대에 논과 밭으로 이뤄진 넓은 벌판이다. 이곳에 마을이 형성돼 생긴 지명이 ‘벌터 마을’이다. ‘벌터’는 벌판의 터이고 여기에 걸맞은 한자 ‘昭坪’을 차용하고 있다. ‘昭坪’은 흰히 트인 평야이니 ‘벌터’와 부합한다.

‘뒤’, ‘뒷담’은 방향이나 음양으로 북쪽에 해당한다. 단순한 意借라면 ‘뒤’에 대당되도록 ‘後里’로 차용해야 한다. 그러나 ‘後’가 아닌 ‘北’을 차용한 것은 뜻의 소리를 취했기 때문이다.

4.2.4. 同一地名의 異記形

同一地名의 異記란 같은 마을의 이름을 여러 다른 한자로 차차 표기한 형태다.

- 돌제 : 突堤 · 疋堤(김제 · 白山)
 가마골 : 夫谷 · 芙谷 · 釜谷(고창 · 古水)
 가막재 : 釜洞(김제 · 白山)
 가막도 : 加幕島(고창 · 上下)

‘돌제’의 한자어를 ‘突堤’ 또는 ‘疋堤’로 하고 있다. ‘돌제’란 ‘돌로 쌓은 제방’이란 뜻이고 이에 대한 차용이 서로 다르다. 한자어 중에서 전자 ‘突’은 음차를 하고 있고, 후자 ‘疋’은 한국식 한자로 소리글자인 우리말 ‘돌’의 뜻글자 ‘石’에 받침 ‘ㄹ’을 붙여 표기하였다. 그러니 음차(突)이면서 한국식 한자(疋)가 두루 지명에 쓰였다. ‘돌제’는 행정 지명이고 마을 주민들은 ‘돌모산’, ‘돌무산’이라고 불렀다. ‘돌모산’은 ‘돌피산’으로 ‘돌이 많은 산’ 정도의 뜻을 갖고 있다. 이곳은 김제 벽골제에서 보듯이 쌀농사를 짓기 위해 큰 제방을 쌓았던 곳으로 유명하다. 따라서 ‘돌제 마을’도 제방을 쌓기 위해 이곳에서 돌을 채취하여 제방을 쌓았을 것으로 추정하고 이런 연유로 지어진 이름이라 보인다.

‘가막도 · 가막재’는 속칭 ‘가막골’이다. 이들도 여러 한자로 표기하고 있다. 동일지명을 다른 한자로 표기하거나 서로 다른 지역인데도 같거나 비슷한 고유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들의 어원은 앞 절에서 보았듯이 두 가지 점에서 관찰된다. 하나는 ‘가마’나 ‘가마(釜)+ㅏ · ㅓ’이고, 또 하나는 ‘감(罎 · 神)이나 ‘감(神)+악 · 양(관형사형어미)’이다. 먼저의 경우는 ‘가마(釜)’로 보아 陶窯地가 있었거나 지형이 釜地의 모양과 연관시켜 ‘釜谷’, ‘釜洞’으로 차용했다가

이후 다시 소리만을 취하여 ‘夫谷·芙谷’, ‘加幕島’를 차용했다고 보는 것이고, 나중의 경우는 ‘감(紺·神)’으로 보아 ‘蘇塗’, ‘城隍’ 등의 神域과 연관시켜 ‘가막도’로 썼다가 나중에 다시 음차한 ‘加幕島’라 보는 것이다.

4.2.5. 韓國式 漢字 및 借字表記形

한국식 한자는 중국이나 일본에서는 쓰지 않고 한반도에서 자생적으로 만들어 사용한 문자이다. 고유어를 한국식 한자로 표기한 지명도 상당히 많다. 한국식 한자는 대개 전부요소나 후부요소에 끼워서 사용하고 있다.

- (厓) 멧들리 : 山厓里(부안·舟山)
- (畚) 논실 : 畚谷(정읍·內臟)
 音답 水田曰畚 古無此字(吏讀便覽 行用吏文)
 我國用字以水田爲畚(李睟光 芝峯類說)
 水田稱畚(鄭東愈 晝永編)
- (串) 질구지 : 吉串里(김제·進鳳)
 音긔 輿地勝覽皆作串 今吏文或作畚 卽處之方言也(吏讀便覽 行用吏文)
- (尺) 잣골 : 尺洞(남원·二伯)
 옷자골 : 上尺里(완주·九耳)
- (遷) 쇠벼리 : 淵遷(龍歌3·13B)
 새벼리(새벼루) : 新研新平(진안·程川)
 벼루물(배루물) : 研村(정읍·德川)

위의 ‘厓’, ‘畚’, ‘串’, ‘尺’ 등은 중국에 없는 한국식 한자이다. ‘遷’도 결국 한국식 차용 표기인 한국식 한자로 본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여러 논의가 있었다. 이를테면 오늘날 한강 본류와 탄금대 일대의 ‘쇠벼리(淵遷)(龍歌3·13B)’는 〈實錄〉에서는 ‘淵遷’ 그대로 쓰고 있고, 〈勝覽〉에서는 ‘金遷’으로 기록하고 있다. 이런 지명의 변화는 후대에 ‘쇠’를 ‘소(沼/淵)+ | (관형격)’로 인식하지 못하고 ‘쇠(金)’로 인식하여 ‘金遷’으로 쓰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 ‘벼리’

는 다른 문헌에는 ‘별ㅎ’, ‘벼로’ 등의 말로 표기되었는데 이것은 현대어 ‘벼랑’의 고어라고 본다¹¹⁾. 이러한 표기는 <樂學軌範·動動>, <樂章歌詞·鄭石歌>, <譯語類解上 7>에서도 나타난다. <勝覽>이나 <行用吏文>에는 ‘水厓石路’를 뜻하는 新羅方言임을 밝혀 놓았으며 茶山の <雅言覺非>에도 ‘別吾’로 발음해야 한다고 하였다. 결국 순수국어의 ‘벼르’를 ‘遷’으로 표기함은 ‘串’자와 같은 한국식 한자와 같은 이치이다. 그러니까 ‘쇠벼라(淵遷)’는訓借로서 한국식 한자가 쓰인 것이고, 이것을 ‘금천(金遷)’으로 ‘音借’한 것은 후대의 어원 인식의 변화에 따른 결과이다. 결국 ‘쇠벼르’는 의미적으로 ‘沼와 접한 벼랑길’(박병철), ‘沼와 접하면서 벼랑으로 난 돌길’(조항범)이라고 보고 있다. 이 경우 ‘沼’는 남한강 물이 짧은 시간 정체하는 모습, 그리고 ‘쇠’의 ‘ㅣ’모음은 관형격을 의미하는 것으로 처리한다. 현재 국어학자들은 ‘쇠벼르’의 위치에 대해 “남한강 본류와 달천 수계가 만나는 탄금대 건너편의 수면 공간”이라고 보고 있다. 따라서 국어학자들은 ‘쇠벼르’의 ‘쇠’가 ‘金’이 아니라 ‘沼+ㅣ’의 결합어라는데 상당히 일치된 견해를 보이고 있다. 이는 주변의 ‘쇠꼬지’라는 지명에 화석어로 남아 있음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언중(言衆)들이 ‘쇠벼라’의 ‘쇠’를 ‘金’으로 오해하면서 금가면(金加面), 가금면(可金面·현 중앙탑면)의 지명을 낳았다고 본다. 高麗史에도 일대 지명으로 한자 ‘금천포(金遷浦)’가 등장하나, 이 역시 당시 언중들은 ‘쇠벼라나루’ 정도로 불렀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원문은 “여수포 이전에는 금천포라고 하였는데 대원군에 있다(麗水浦 前號金遷浦 大原郡)”로 돼 있다. 대원군은 충주의 별호다. 이로 보면 ‘遷’은 한국식 차용 표기인 셈이다.

한편 전북지역의 전래 지명 중 ‘쇠벼라’와 비슷한 ‘새벼리(새벼루)(新研)新平, 진안·程川’, ‘벼루물(배루물)(研村, 정읍·德川)’ 등이 있다. ‘새벼리’를 ‘新研’으로 차용한 까닭은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하나는 ‘새벼리(새벼루)’에서 처음부터 ‘새’를 ‘新’으로, ‘벼리’를 ‘研’ 혼차하여 새롭게 작명했을 수도 있고,

11) 벼로 或云 빙에 地灘(譯語類解 上·7)

벼로 峭崖(漢清文鑑 一·39)

또 하나는 ‘소(沼)’의 어원이 잊혀져 ‘소(沼) > 새(新)’로, ‘벼르(遷) > 벼라 > 벼루(研)’로 오해하면서 ‘新研’으로 차용했다고 볼 수 있 있다. ‘벼루물(배루물)(研村)’도 이치가 같다. 그러나 이들 마을보다 큰 면(面) 단위 지명에 각각 ‘程川’, ‘德川’의 ‘川’이 있는 것으로 보아 ‘벼라(遷)’일 가능성이 크다. 이것이 후대에 어원에 대한 인식이 사라져 새롭게 지어진 것이라 보인다.

4.2.6. 同語異記形

위에서 살펴본 同一地名의 異記가 한 마을의 이름을 여러 다른 한자로 차차 표기한 것이라면 同語異記는 하나의 고유어 지명에 대해 서로 다른 지역에서 한자 표기를 달리한 형태이다.

- 대파니 : 竹靑里(익산·朗山·三箕)
 大興里(완주·上關)
 大坂里(임실·聖壽)
- 방죽안 : 堤內(익산·笠岩)
 防築(순창·金果)
 玉堤(고창·星內)
- 한골 : 大洞(정읍·所聲)
 大谷(임실·只沙)

고유어 ‘대파니’에 대해 서로 다른 마을에서 ‘竹靑里’(익산·朗山·三箕), ‘大興里’(완주·上關), ‘大坂里’(임실·聖壽) 등으로 한자를 달리 쓰고 있다. ‘대파니’가 ‘竹靑里’로 표기된 것은 ‘대밭이 파랑다’에서 연유된 말이다. ‘대파니’는 ‘대가 파랑다’와 같은 문장에서 한 단어인 합성어로 축약된 것이고, 이것의 활용형 ‘파라니’를 훈차한 것이 ‘竹靑里’이다. ‘大坂里’는 ‘대파니’의 변이음을 단순히 ‘음차’한 것이다. ‘大興里’로의 차지는 앞선 두 지명과 달리 한자어와의 연관관을 찾기가 어렵다. 소리와 의미에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興’자로 차자한

연유가 확실하지 않다. 다만 ‘대가 크게 번성하여(興) 괴랑다’에서 ‘번성하다’를 염두하고 차자했을까를 유추할 뿐이다.

고유어 ‘방죽안’에 대한 한자도 마을마다 다르게 차용하고 있다. 위의 예에서 보듯이 ‘堤內(익산·笠岩)’, ‘防築(순창·金果)’, ‘玉堤(고창·星內)’에서 두루 쓰고 있다. 이들 모두 ‘堤’를 차용하는 것으로 보아 마을이나 근처에 농사를 짓기 위한 방죽을 축조하고, 이를 관리했을 것이라 본다. 실제로 고창 星內에 ‘방죽안(玉堤里)’ 마을이 있다. 이곳은 논과 들 중심의 지형으로 논농사를 주로 하고 있다. 이 마을에는 오래된 방죽이 있다. 한자어 ‘玉堤里’의 지명은 행정 구역 폐합 당시 통합된 여러 지역 중에 ‘外玉’과 ‘堤內’의 이름을 따서 ‘옥제리(玉堤里)’라 하였다. 이곳 자연마을로는 월봉, 외옥(外玉), 내옥(內玉), 신동, 구정 마을이 있다. ‘외옥(外玉)’과 ‘내옥(內玉)’은 방죽이 마을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에 따라 달리 구분하였다. 한편 ‘외옥(外玉)’은 ‘옥갯(玉湖)’이라고도 하였는데 그것은 옛날에 마을 앞이 바다여서 포구(浦口)가 있었고 갯벌에 은빛이 돈다고 해서 이를 본뜻기 때문이다.

‘한골’의 ‘大洞’, ‘大谷’의 표기는 훈차 방식으로 각각 다른 마을에서 한자만을 달리하고 있다.

4.2.7. 異語 또는 異音語 同記形

‘異語’ 또는 ‘異音語 同記’란 고유어 음상이 서로 다른 말을 같은 한자로 표기하는 형태이다. 같은 한자로 차자한 것은 뜻은 같고 소리만 다른 형태를 취했기 때문이다. 위에서 살펴본 同語異記가 동일 지명에 대해 서로 다른 지역에서 한자 표기가 다른 것이라면, 이는 반대로 고유어의 음상은 다르고 차용자는 같다.

대창물(고창·雅山), 대파니(익산·三箕) : 竹青
서릿골(김제·金山), 서리실(정읍·七寶), 사발골(장수·西山) : 盤谷

가막골(완주·雲州), 가므골(익산·三箕) : 玄洞
 바르메(임실·靑雄), 발매(옥구·開井) : 鉢山
 달아실(장수·西山), 달애실(淳昌·八德) : 月谷
 종종메(부안·舟山), 등등메(완주·鳳東) : 鍾山

‘대창물’, ‘대파니’는 소리는 다르지만 뜻이 같기에 ‘竹靑’을 차용하고 있다. ‘서릿골’, ‘서리실’, ‘사밭골’도 모두 같은 뜻이기에 ‘盤谷’으로 차차하고 있다. ‘가막골’, ‘가므골’은 ‘검다~감다(玄)’에 ‘골(洞)’이 결합한 형태이다. 이곳은 마을이 숲속으로 으스스한 곳에 안치되어 있어 명명되었을 확률이 크다. 그런데 간혹 ‘가뭇골’로 구전되고 있으나, 이는 ‘玄’을 속칭 ‘가뭇 현’으로 읽기에 ‘가뭇다’를 ‘가뭇’으로 오인하고 ‘가뭇골’로 구전시켰을 가능성도 있다. 구례군의 ‘피앗골’을 한국 전쟁과 떠올려 오인하는 경우와 같은 이치다.

‘바르메~발매’의 ‘鉢山’, ‘달아실~달애실’의 ‘月谷’의 차차도 ‘이음어 동기’다. ‘이음어 동기’는 우리말 음상에 맞는 한자가 없을 때 훈차하는 경우가 많다. 간혹 음차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수는 드물다. 위의 ‘종종메~등등메’의 차차 ‘鍾山’이 그러한 예이다.

지금까지 고유어에 대한 한자 차용의 두 방식과 이를 바탕으로 다양하게 표기한 일곱 형태를 살펴보았다. 이 밖에도 복잡한 방식의 형태가 있다. 곧 ‘음훈음차’, ‘훈음음차’, ‘합성명’ 등이 있고, 이들 각 차용 방식과 형태 안에서도 차용자에 대한 ‘생략’, ‘유사생략’ 등 변이형태가 있다.¹²⁾ 그러나 이들의 변이형태가 본문에서 다룬 방식과 형태에 크게 벗어나지 않아 본 논의에서 다루지 않았다.

12) 여기에 대한 내용은 유재영(1971), 도수희(1998) 참조.

5. 맺는말

시대를 거듭할수록 그나마 소수 구전되는 고유어 지명이 사라지고 있다. 더욱이 행정 지명으로 한자어가 대부분 쓰이고 있어 소멸 시기를 재촉하고 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이들을 기록하고 보존하는 일을 하고 있으나 미흡하다. 과거에는 우리의 고유한 문자가 없었기에 어쩔 수 없이 한자를 사용했다지만 우리문자를 만들어 쓰고 있는데도 고유어 지명을 사용하는 일을 등한시 하고 있다. 이제부터라도 고유어 지명을 사용하여 지역주민의 의식구조를 이해하고 문화를 계승하는 일이 필요하리라 본다.

지금까지 논의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전북 지역 소단위의 전래지명에 대한 한자 차자 표기가 어떤 방식을 토대로 어떤 형태로 사용되고 있는지 살폈다. 그리고 형태별로 나누어 대표적인 고유어 지명의 유래와 음운의 변화를 분석하면서 때로 문화 지리적 정보를 참고하였다. 이러한 논의는 그간의 축적된 자료와 구전으로 전해오는 말들을 토대로 이루어졌다.

①고유어에 대한 한자 차자 방식은 크게 두 가지인 ‘음차(音借)’와 ‘훈차(訓借)’이다.

②기존의 ‘훈음차’와 ‘음훈/훈음 혼용차’를 차자 방식으로 나누지 않았고 차용 형태로 분류하였다. 그것은 이들도 결국 한자의 ‘음’과 ‘훈’을 차용하여 형식만을 달리 하기 때문이다.

③그 결과 차용 형태를 다음과 같이 일곱 가지로 분류하였다.

④‘훈음형(訓音形)’, ‘음훈(音訓)/훈음혼행형(訓音 混行形)’, ‘의표기형(義表記形)’, ‘동일지명(同一地名)의 이기형(異記形)’, ‘한국식한자(韓國式漢字) 및 차자표기형(借字表記形)’, ‘동어이기형(同語異記形)’, ‘이어(異語) 또는 이음어동기형(異音語同記形)’ 등이다.

⑤자연부락의 고유어 지명은 대개 지리적 환경, 역사적 사건 그리고 인물에

엷힌 사연 및 설화와 연관되어 命名되는데, 이를 한자로 ‘음차’나 ‘훈차’하는 과정에서 때로 고유어의 유래를 잘 못 인식하여 표기하는 경우가 있었다.

⑥고유어 지명에 대한 한자 표기 관계를 밝히기 위해서는 때로 음운의 역사적 변화를 추적해야 할 때가 있었다. 예를 들어 익산의 ‘소라단’에 대한 한자 ‘松田內’는 15세기 ‘ㅂ>ㅃ>ㅇ’과 같은 약화 탈락의 변화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고유어 지명에 대한 유래와 그 의미를 밝히는 일은 어려운 일이라고 본다. 그나마 한자로 차용하는 과정을 통해서 어려움을 다소나마 해소할 수 있더라도, 그것이 본래 고유어가 갖고 있는 의미를 제대로 담고 차용됐는지 많은 검증이 필요하다. 한자어는 시대를 거슬러 오면서 고유어 인식에 오해가 있을 수 있고, 한자에 대한 무지 등에서 차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분석이 더욱 치밀하려면 철저한 어학적 분석과 문화 지리적인 환경 등의 이해가 동반되어야 한다.

▮주제어: 전래지명, 명명법, 음차, 훈차, 고유어, 한자

<참고문헌>

- 강병륜(1997). 『고유지명어 연구』. 박이정.
- 국토지리정보원(2013b), 『지명의 표기실태 조사 및 대응 방안 연구』, 국토지리정보원.
- 국토지리정보원(2013c), 『국제적 관심지명 조사 및 대응방안 연구』, 국토지리정보원.
- 김방한(1982), 「溝漣와 烏斯숨에 대하여」-한국어 계통론을 위한 기초연구, 언어학 5, 한국언어학회, 13~31면.
- 김완진(1980), 『鄉歌解讀法 研究』, 서울대출판부.
- 김정태(2017), 「지명 형성의 한 유형에 대하여」, 『지명학』 26, 한국지명학회, 33-62면.
- 김준영(1986), 「全北 小地名의 語源」, 『전라문화논총』 제1집, 전라문화연구소, 25~52면.
- 남풍현(1989), 「借字表記法の 固有名詞表記法에 미친 中國의 영향」, 『진단학보』 제68호, 진단학회, 185~190면.
- 도수희(1990), 「龍飛御天歌의 地名註釋에 대하여」, 강신항교수 회갑기념국어학논문집, 태학사.
- _____ (1994), 「지명연구의 새로운 인식」, 『새국어생활』 제4권 제1호, 국립국어연구원, 3~27면.
- _____ (1998), 「지명차자표기 해독법」, 『지명학』1, 한국지명학회, 95~128.
- 박병철(1994), 「龍飛御天歌 正音 表記 地名과 漢字語 地名의 對立, 變遷에 관한 研究」, - · 쇄벼 · 라, 滯遷 · 金遷을 중심으로, 국어학 통권 제60호, 국어학회, 3~32면.
- _____ (2009), 「固有語 地名의 漢字語化 過程과 그 對立 樣相에 관한 研究」, 『새국어교육』82, 한국국어교육학회, 483-510.
- 손희하(2014), 「고지도와 차자표기」, -무등산 일대 표기를 중심으로-, 『구결연구제』 33집, 태학사, 285~309면.
- _____ (2017), 「지명 소멸의 현황과 원인」, 『지명학』 27, 한국지명학회, 121~144.
- _____ (2014b), 「호남 지역 지명 연구 성과와 동향: 1900년 이후를 대상으로」,

- 『地名學』 21, 한국지명학회, 213-268.
- 송기중(1997), 「借字表記의 文字論의 性格」, 『새국어생활』 제7권 제4호, 국립국어원, 5~29.
- 양주동(1965), 『增訂 古歌研究』, 박문서관.
- 유재영(1972), 「전북지방 전래지명의 연구」, 『논문집』 제6집, 원광대학교 논문집, 137-268면.
- _____ (1975), 「地名表記의 한 고찰」-〈龍飛御天歌〉 註解를 中心으로-, 『논문집』 제8집, 원광대학교 논문집, 185~206.
- 이강로(1991), 「加知奈·加乙乃→市津의 해독에 대하여」, 국어의 이해와 인식, 같음. 김석득교수 화갑기념논문집, 한국출판사, 47~66면.
- 이돈주(1971), 「지명어의 소재와 그 유형에 관한 비교연구」, 한글학회 50돌 기념논문집, 한글학회.
- _____ (1994), 「지명의 전래와 그 유형성」, 『새국어생활』 제4권 제1호, 국립국어연구원, 28~49.
- 이병도(1980), 『三國史記 譯註』, 을유문화사.
- 이병선(1978), 「慰禮城과 百濟·十濟國名考」, 『어문학』 37, 어문학회.
- 이철수(1980), 「名稱科學의 論理 -地名研究의 당면과제」, 『어문연구』 28, 한국어문교육연구회, 546~555면.
- 정영숙(1998), 「지명어의 음운현상에 대하여 (I)」, 『한국언어문학』 제40집, 한국언어문학회, 171~194.
- 조항범(2012), 「龍飛御天歌에 나오는 地名 '쇠벼라'에 대하여」, 『한국어학』 통권 제54호, 한국어학회, 249~289.
- 지현영(1942), 『朝鮮地名의 特性』, 朝光 8권 9호.
- 천소영(1990), 『古代國語의 語彙研究』, 민족문화연구총서 53, 고려대학교 출판부.
- _____ (2001), 「地名에 쓰이는 술어에 대하여」, 『지명학』 5, 한국지명학회, 97~118.
- 최두환(2008), 「'益山' 地名, '金馬渚'의 語義 및 形態素 分析」, 원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 최범훈(1976), 『地名論』, 한국어학논고(제3장), 통문관.

한주희(2017), 「지명어 형성의 기제와 의미 합성성」, 『지명학』26, 한국지명학회, 331-354.

〈참고자료〉

『舊韓國 地方行政區域 名稱一覽』(1985), 朝鮮總督府

〈三國史記〉

〈市政10年史〉(1992), 井州市

〈雅言覺非〉

〈樂章歌詞·鄭石歌〉

〈樂學軌範·動動〉

〈輿地勝覺〉

〈龍飛御天歌〉

〈吏讀便覽 行用吏文〉

〈譯語類解上 7〉

〈芝峯類說〉

〈戶口總數〉(1789)

〈訓蒙字會〉

<abstract>

A Study on the Notation between Korean Land Name and Chinese Characters in 〈Sub-village of Jeonbuk Province〉

Yu, Seung-sub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cord the place names of the sub-towns in Chonbuk area. Based on this, I aim to analyze Korean language and describe its characteristics. In this process, we will explain the reason for the nomination.

Traditionally, when borrowing and naming a Korean proper name as a kanji, it was generally called 'sound borrowing' and 'semantic borrowing'.

However, it is not enough to explain the relationship between Chinese characters and Korean characters in two systems. Therefore, we review the existing Chinese character system and explain the relationship between Chinese character and new system.

As a result of this study, it was reasonable to divide the borrowing of Chinese characters into two systems. In this system, it was discussed that it was variously borrowed from 7 types. In order to discuss these issues, we discussed the features of various fields such as the phonological and personal changes related to the nomenclature, semantic aspects, and cultural and geographical aspects.

The naming of the native language of ancient villages is usually made up of geographical environment, historical events, and stories related to the characters. In this process, it sometimes reflects the inheritance of the native language. In order to understand the relationship between kanji and kanji, we need to keep track of phonological changes.

Especially, when correct phonological changes and morphological analysis are

possible for Korean proper words, we can find out the relationship between Chinese characters. Otherwise I saw that there was a limit to understanding the origins of Chinese characters.

【Key words】 : Nomination, nomenclature, Sound borrowing, Meaning borrowing, A native language, Chinese character

유승섭

원광대 국어국문학과 강사

(54538) 전라북도 익산시 익산대로 460

전자우편 : subyu2002@hanmail.net

이 논문은 2018년 10월 30일에 투고되었으며, 2018년 11월 30일에 심사 완료되어 12월 6일에 게재 확정되었음.